



시에 죽고 시에 살다  
우대식 지음

삶이 한편의 시가 된 시인들

천재는 요절한다고 했던가. 천재성을 인정받았으나 끝내 요절한 시인들이 있다. 이연주, 신기섭, 기형도, 여립, 이경록, 김민부, 김만옥 등... 송실대 국문과 겸임교수인 우대식 시인이 펴낸 '시에 죽고 시에 살다'는 삶 자체가 한 편의 위대한 시가 된 시인들의 이야기다. 저자는 요절 시인들의 고향이나 그들이 거쳐 간 곳들을 직접 찾아가 사진을 찍고 유족과 지인을 인터뷰했다. 저자가 생각하는 요절은 일찍 죽었다는 뜻이 아니다. 여기서 '요'는 '휘어져 부러지다'는 뜻으로 그들의 재능이 자신의 삶을 부러뜨렸다는 것이다. 버스 전복 사고, 심야극장에서의 죽음, 간경화증, 백혈병, 화재, 자살, 의문의 죽음 등. 죽음의 이유는 다르지만, 이들은 자신의 삶을 창조적 에너지로 밀어 올려 결국 부러지고 말았다는 것이다. <서울·1만48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빛의 물리학  
EBS 다큐제작팀 지음

빛을 통해 본 상대성이론

빛을 키워드 삼아 현대 물리학의 두 축인 상대성이론과 양자역학을 쉽게 소개한 책이 나왔다. EBS 다큐제작팀이 펴낸 '빛의 물리학'은 우주와 물질은 무엇이며 어떤 법칙으로 움직이는지에 대한 현대 물리학의 답변을 보여준다. 책에는 갈릴레이, 뉴턴, 맥스웰, 아인슈타인, 보어, 하이젠베르크, 슈뢰딩거 등 빛의 정체를 파헤친 과학자들의 발자취가 오롯이 담겨 있다. 그런데 왜 빛일까? 갈릴레이는 빛의 속도를 처음 재려 시도했던 과학자였고, 뉴턴은 태양빛의 정체를 밝혀내려 시력을 잃을 뻔 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은 빛에 대한 호기심에서 출발, 별빛에 의해 증명되었다. 양자역학은 빛을 불연속적인 형태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출발했다. 이렇듯 빛을 쫓다보면 자연스럽게 상대성이론과 양자역학을 큰 틀에서 만나게 된다. <하나무·1만6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도전? 오만? ...역사에는 없는 위대한 시도들



위대한 실패  
베른트 잉그마르 구트베르레트 지음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는 말이 있다. 승자가 역사 기록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는 의미다. 실패자(또는 패배자)는 별 수 없이 역사적 평가에 있어 부당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기록에서 외면받거나 기억에서 완전히 잊혀지기도 한다. 동서고금의 역사가 이를 방증한다. '세계사의 50가지 오류'의 저자이자 독일 출신 저널리스트 베른트 잉그마르 구트베르레트가 '위대한 실패'를 펴냈다. 그동안 저자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주류 역사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사실 증명에 도전해 왔다. '위대한 실패'는 성공 사례 위주로 편집된 역사 이면을 들추어낸다. 결과적으로 대실패로 끝났지만 역사에서 기억해주시 않는 사건을 탐색, 원인과 결과를 철저히 추적한다. 이를 통해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던 근원은 무엇이고, 실패의 과정, 실패의 의미 등을 통찰한다. 한마디로 인간의 자만심에 관한 광대한 문화사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바벨탑 축조 이래 끊임없이 능력의 한계를 시험하는 프로젝트를 시도해왔다. 새로운 도전을 향한 인간의 욕망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책이 다루는 실패는 시공을 초월해 광범위하다. 모두 12개의 프로젝트들은 그 자체로 독특하고, 더러는 과대망치적이며, 혐오스럽기까지 하다. 세계 공용어를 꿈꿨던 에스페란토는 대표적인 사

보배 성당·프랑스 혁명력...

인간한계 도전 12개 프로젝트

과대망상적 실패서 배우기

레다. 에스페란토가 아무리 간단명료해도 언어의 보급에는 문화적, 역사적 근거가 큰 영향을 미치는 법이다. 한마디로 전 인류에게 다가갈 세상을 지속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이상주의는 꿈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고딕 양식을 대표하는 중세의 보배 성당도 완공되지 못한 건물이다. 300년에 걸친 프로젝트가 온전히 실현되지 못한 것은 최고에만 집착한 나머지 재정과 공기(工期) 같은 일정을 고려하지 않은 탓이다. 스페인의 유서 깊은 도시 톨레도에 양수시설을 설치한다는 계획은 시민들의 저항으로 물거품이 됐다. 제2의 아르키메데스라고 평가되는 투리아노가 평생을 헌신했지만 오히려 조롱과 비난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세계 역사상 가장 급진적인 시도로 꼽히는 프랑스 혁명력(달력)도 대표적인 실패 프로젝트다. 현재 세계가 사용하고 있는 달력은 그레고리력이다. 그런데 프랑스 공화주의자들은 '1주 10일'의 달력을 추진했다. 하루를 10시간으로 1시간은 각 100분으로 나누려 했는데, 만약 당시의 혁명력이 살아 남았다면 지금의 인류의 문화와 생활은 엄청난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스펙터클한 대형 프로젝트 가운데 구소련은 단연 으뜸을 차지한다. 일명 '시베리아관 4대강' 계획인 대형 수자원 프로젝트가 그 예다. 시베리아 큰 강들을 우회시켜 남부와 카자흐스탄



최고에만 집착해 재정과 공기를 고려하지 않아 결국 완공되지 못한 중세의 보배성당.

의 건조 지역으로 보내 배수에 활용해야 한다는 계획도 있었다. 지극히 '실용적'인 계획은 그러나 부패한 정부와 연구소 때문에 중단되었다. 스스로를 정치는 물론 세계 제국의 건축가라고 생각한 히틀러의 광케철도는 나치 독일의 거대망상 중에서도 비롯됐다. 유럽을 가로지르려는 2층짜리 호 텔 열차는 엄청난 재원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제국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 밖에 원숭이와 인간의 교배를 시도했던 유전학의 질주, 지중해를 통해 유럽과 아프리카를 이어보려던 아틀란티드와 계획도 완성되지 못했다. 이처럼 저자는 '위대한 실패'라고 명명한 프로젝트들을 통해 인간의 문화사를 종합무진 탐험한다. 성공했던 실패했다, 역사는 그 자체로 현재의 우리에게 성찰할 기회를 제공한다. <울리시즈·1만5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의료사기·뽀 의문사...기득권에 맞서 싸우는 개인의 무력감



보헤미안 랩소디·살고 싶다  
정재민·이동원 지음

제10회 세계문학상 공동수상작(삼공 각 5000만원) 정재민 씨의 장편 '보헤미안 랩소디'와 이동원 씨의 장편 '살고 싶다'가 나왔다. 세계문학상 사상 처음으로

로 2차 투표까지 동수를 얻을 만큼 심사위원들의 눈길을 끌었던 작품들이다. 현직 판사인 정재민의 '보헤미안 랩소디'는 판사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소설이다. 어머니가 의료사고로 사망한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범정부정을 벌인다는 내용이다. 주인공 하지원은 전문의인 우동규를 사기죄로 고소하기로 결심하지만 이후 고교 선배, 동료 판사 등 여러 루트를 통해 회유와 압박을 받는다. 제약회사, 언론, 지방정치인 등이 하나로 연결돼 우동규를 돕는다. 이 과정에서 하지원은 판사가 아닌 일개 당사자로서 무력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경험하게 되고 나약한 실존에 눈을 뜨게 된다. 한편 이동원의 '살고 싶다'는 군병원에서 일어나는 의문의 죽음에 관한 추적을 그린 소설로 폐쇄된 조직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본성을 다룬다. 소설은 제대가 멀지 않은 상병 '이필립'이 친구의 자살 사건 조사에 가담하면서 벌어지는 사건을 담고 있다. 화자인 이필립과 자살한 친구 정선한은 한때 통합병원이라는 공간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얼마 후 정선한은 "살고 싶다"는 짧은 문장을 적어놓고 스스로 목을 맨다. <나무꾼 의사·1만3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

음식에 대한 사회문화적 의미 고찰



음식의 문화학  
밤 애슬리 지음

언제부턴가 길을 가다보면 길게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을 자주 목격하게 된다. 일명 '맛집'이라 불리는 곳들이다. TV를 켜면 맛집에서 음식을 먹는 이들의 모습이 나오고, 음식전문가들에 의해 평가되고, TV를 통해 더 길다면 줄이 만들어진다. 음식은 이제 더 이상 살기

위해 먹는게 아닌, 사회 문화가 됐다. 음식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회학적 의미를 고찰한 책 '음식의 문화학'이 출간됐다. 밤 애슬리, 조안 홀로스, 스티브 존스 등 영국 노팅엄 트랜트대학교에서 저자들이 진행했던 '음식문화'에 관한 토크에 토대하고 있는 만큼 음식문화와 관련한 다양한 현상들을 다루고 있다. 책은 단순히 어느 재료가 어떻게 조리되는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연구한 것이 아닌,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만들어낸다'고 주장하며 음식에 관련한 사회문화적 의미를 파헤친다. <한올이카데미·3만3000원>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주)대원여행사**  
062)526-7000  
www.daewontour.com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대원빌딩1층 [신세계백화점] 사거리  
※각 역에서도 접수 받고 있습니다.

**광주역**  
062)525-4835  
**광주송정역**  
062)941-3278

기차여행

우원 KORAIL 광주본부  
한국관광공사  
강원권협력단

5월 31일(토)출발 당일 기차여행	6월 13일(금)출발 무박2일 기차여행	6월 20일(금)출발 무박2일 기차여행	7월 18일(금)출발 1박3일 기차여행
<b>고수동굴/구인사/온달관광지</b>	<b>부산해운대/이기대/자갈치시장</b>	<b>부석사/선비촌/안동하회마을</b>	<b>정동진/울릉도/독도</b>
시간   일정	시간   일정	시간   일정	시간   일정
06:30   광주역 출발	22:00   광주역 출발	23:50   광주역 출발	1일째   광주역 출발
11:00   단양역 도착	04:30   용궁사/해운대/동백섬/APEC 누리마루/이기대 공원	05:30   풍기역 도착	20:50   광주역 출발
16:00   단양 고수동굴/구인사/온달 관광지 관광	13:30   자갈치시장 관광	06:30   부석사/소수서원/선비촌/안동 하회마을 관광	2일째   정동진역 자유관광 (일출, 모래시계공원)
22:50   단양역 출발 / 광주역 도착	22:30   부산역 출발 / 광주역 도착	21:30   풍기역 출발 / 광주역 도착	11:30   독도 관광
성인 75,000 원~ 경로 73,000 원~ 소아 70,000 원~	성인(경로) 69,000 원~ 소아 65,000 원~	성인 77,000 원~ 경로 75,000 원~ 소아 74,000 원~	17:30   울릉도 육로 관광 A코스
			3일째   울릉도 육로 관광 B코스/해안 산책로 관광
			08:00   강릉역 출발/광주역 도착
			02:00   강릉역 출발/광주역 도착
			성인 320,000원~소아 290,000원~
			1일째   백담사/통일전망대/화진포의 성 관광
			09:00   백담사/통일전망대/화진포의 성 관광
			2일째   월정사/상원사/양떼목장/주문진어시장 관광
			04:40   (일출, 모래시계공원)
			10:30   주문진어시장 관광
			19:00   강릉역 출발/광주역 도착
			성인 220,000원~소아 200,000원~